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 일정

12월

- 4(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8(화)~21(월) 2학기 기말고사
- 18(금)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2(화) 겨울방학 시작
- 25(금) 성탄절(공휴일)

2021년 1월

- 1(금) 신정(공휴일)
- 4(월)~6(수) 원제제 논문 접수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간 박종훈
- 간사 문창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0년 12월 5일(토)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72호(월간)

■ 초점

물과 공기 같은 우리 문화에 더욱 가까워지기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김동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명문대학인 고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육신문과 인터뷰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올해 5월에 국립고궁박물관장으로 부임하여 박물관 기능의 중요성과 가치, 의미 등을 느끼고 배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의 운영 비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청 소속으로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 전문 박물관입니다. 경복궁 서쪽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백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7만 점의 소장품을 보관·관리·연구하고, 총 7개의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2~3차례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왕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2005년 개관 이래로 전시·교육·유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는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박물관을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미래비전의 핵심은 왕실문화 향유 기반 확대를 통하여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세상에서 박물관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관람객의 입장에서 네 가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박물관의 문화 콘텐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로 만드는 친절한 박물관이 되려 합니다. 단,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유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고품질 전시·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쾌적한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2수장고를 건설하고 관람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관람객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의 전문지식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동영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네 번째, 연구결과와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문화재 산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전 세계 왕실문화 전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 국민들이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문화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물관은 소장품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곳입니다. 가령, 올해 저희 박물관에서는 '신(新) 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라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는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초기까지, 격동하는 당시의 모습과 조선이 지향했던 사회를 관통해서 보여줍니다. 서양식 생활 도자기는 근대기 왕실에 유입되었던 서양식 생활 문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근대기 조선의 국제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주요한 유물은 유리 전등갓과 살라미나 화병이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1887년 전기가 처음 들어온 사실을 배웁니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당시 창덕궁 등에서 사용했던 유리 전등갓을 보면 전기가 어떤 모습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는 조·불 수호조약을 맺습니다. 1888년 프랑스의 사디 카르노 대통령과 조선의 고종이 수교예물을 교환합니다. 이때 프랑스가 보낸 것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프랑스는 당시 유럽에서 최상급 도자기로 인정받고 있

던 도자기를 보내 자국의 문화적 위상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은 당시에 보내 온 프랑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관람객은 조선 외교의 한 단면을 직접 보게 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통하여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재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한 시각이나 시대만 생각한다면 다양성과 풍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나 문화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문명도 외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영향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는 흐르는 물이나 공기와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문명 간에도 비슷한 점이 있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화를 보고 타국과 타 문명의 역사를 두루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성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민족 고대'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독재와 투쟁해 온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자부심은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역입니다. 젊음의 특권으로 높고 큰 이상을 가슴에 품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KU의 사계를 교육신문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 '교육신문' 발전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육신문 발전기금 납부 및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korea.ac.kr>)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서에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교육신문사로 보내주시 뒤,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회비와 광고게재료는 기부금 납부 영수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주 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107호 교육신문사
- 연락처 : 02-3290-1690 - 팩스 : 02-923-4540 - 이메일 : edunews@korea.ac.kr
- 교육신문 발전기금 - 교육신문 구독비 - 연회비 : 2만원 - 평생회비 : 20만원

※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

2020학년도 수업시연 경연대회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각각 지난 11월 4일(수), 11월 16일(월)에 ‘2020학년도 수업시연 경연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비교사의 전문성 함양 및 수업 역량의 증진, 다양하고 참신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수업시연 경연대회는 본교 사범대학 재학생 전체와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양성과정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재교육과정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본 행사의 모든 과정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은 제출된 영상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심사에 앞서 10월 5일(월)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후 기간 내 신청한 학우 및 원우를 대상으로 사범대학은 10월 27일(화), 교육대학원은 11월 4일(수)까지 예선 및 본선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5명

의 학우, 교육대학원에서는 7명의 원우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심사는 ‘수업지도안 및 구체성(20점)’, ‘수업 전달력(20점)’, ‘수업 내용의 우수성(20점)’, ‘교수학습방법(20점)’, ‘수업운영의 현장성(20점)’ 상기 5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본교 사범대학(<http://kuedu.korea.ac.kr>)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edugrad.korea.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l561@korea.ac.kr

전 공	성 명	수 상
사범대학 수상자		
가정교육과	신주은	최우수상
체육교육과	이준혁	우수상
영어교육과	김수연	우수상
교육학과	조은주	장려상
영어교육과	이하은	장려상
교육대학원 수상자		
영어교육전공	박주용	최우수상
국어교육전공	공건우	우수상
가정교육전공	정지우	우수상
수학교육전공	이예지	장려상
체육교육전공	이희윤	장려상
생물교육전공	신채현	장려상
미술교육전공	김한솔	참가상

※ 순서는 홈페이지 공지에 따름.

사범대학 이채연 장학금 기부식



지난 10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사범대학강실에서 2020학년도 사범대학 이채연 장학금 기부식이 있었다. 이번 기부식에는 정태구 사범대학장,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 교육경영 AMP 양채진 담임 등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

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은 식사 시간 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은 2017학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 이 중 1,200만 원은 사범대학 장학금으로, 800만 원

은 사범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의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채연 회장은 본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AMP(당시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및 교육·문화·체육 글로벌리더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다. 본교 관계자들은 이채연 회장이 현재까지 4년째 장학금을 기부한 데 감사의 의미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장소를 이동하여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채연 회장에게 고려대학교 와인과 디퓨저를 기념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부식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사범대학은 본 장학금의 수여식을 11월 24일(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제2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지난 11월 14일(토) 운초우선교육관 306호 컴퓨터실에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제2차 적인성 검사가 있었다. 이번 검사는 학부 및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 가운데 적인성 검사를 미응시하였거나 응시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3개 세트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번 검사는 실시 중 교내 네트워크 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 한해 손을 들면 자리를 옮겨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응시 후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반드시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포털에 로그인하여 ‘정보생활-교직사향-인성적성검사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당해 학기 검사는 총 5차수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인원에 따라 시험 일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일부 신청자는 미배정될 수 있다. 신청 후 결사하면 해당 학기 선발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경계하여 실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다. 각 차수별 응시인원은 15명 내외로 제한하였으며 검사 응시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였다. 각 차수의 검사 종료 후에는 약제를 사용하여 실내 방역을 진행하였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지난 11월 2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2021학년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은 총 3교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교시(오전 9~10시)에는 교육학, 2교시(오전 10시 40분~오후 12시 10분)에는 전공A, 3교시(오후 12시 50분~2시 20분)에는 전공B 시험이 시행되었다. 교육학은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A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40점, 전공B는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40점으로 구성되었다. 전공A는 교과 교육학을, 전공B는 교과 내용학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한편, 제1차 시험은 응시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응시 시간 및 문항 구성이 동일하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화) 오전 10시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

정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의 경우 사도 교육청별로 그 운영 방식이 상이하므로, 응시하는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일정 및 방식을 다시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으로,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가·실형 평가 실시 과목 응시자는 2021년 1월 20일(수) 실가·실형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1월 26일(화)에는 비교수 교과를 제외한 교수 교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1월 27일(수)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이루어진다. 최종 합격자는 2021년 2월 10일(수) 오전 10시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안수진 기자 dkstnwl561@korea.ac.kr

제20기 교육경영 AMP 합숙 세미나



지난 11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2박3일간 충청북도 제천에서 ‘제20기 교육경영 AMP 합숙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20기 교육경영 AMP 원우 26명과 양채진 담임 및 여러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결할 때부터 해산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세미나 1~3부는 모두 10일(화)에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1879와인스쿨의 김성동 주임교수가 ‘와인의 향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어 2부와 3부는 각각 ‘만찬 및 친

교의 시간’, ‘단합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대면 소통하지 못했던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11일(수)~12일(목)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에 탑승하여 경치를 감상하며 원우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제20기 교육경영 AMP 원우들은 각 사회 분야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하여 폭넓은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원우 간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다짐하며 합숙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1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입학 구술시험

지난 11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운초우선교육관과 우당교양관의 31개 강의실에서 ‘2021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입학 구술시험’이 진행되었다.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응시자들의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및 발열 여부 확인과 현관 출입 시 작성한 코로나19 문진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마스크를 미소지한 응시자에 한해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며, 현장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된 응시자를 위해 비대면 면접을 위한 독실 등을 준비했으나 증상이 발견된 응시자는 없었다. 한편 자가 격리 중인 응시자의 경우, 별도로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대학원은 이번 전기 입학 전형 을 통하여 가정교육전공을 포함한 총 23개 전공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 중 가정교육, 교육사철학, 생물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지리교육은



전기에만 모집한다.

구술시험 당일, 응시자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전공별 대기실에 입실하여 순서를 기다리다가 수험 번호순으로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공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연구계획, 지원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구술시험 결과는 서류 평가 점수와 함께 최종 합격자 선발 과정에 반영된다. 합격 여부는 오는 12월 18일(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이슈

미래 교육정책과 학교 공간 혁신의 방향



이재림

한국교육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학교 공간 혁신은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글로벌 사회와 제4차 산업의 도래에 따라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이 가야 할 방향과 그에 걸맞는 학교 공간 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Ⅰ 경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시설 확보

우선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주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 학습경험의 다양화는 지식을 융합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 일반 학급 교실에서 하기 어려운 안전체험교육, 주제별 통합교육체험(메이커스페이스), 다목적 활동공간, 퍼포먼스공간 등 다양한 교과교실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교과 수업의 한계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주는 교실 밖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Ⅱ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2004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월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습활동을 확장하여 다양한 차원의 학습경험을 수반할 수 있도록 다분야 학습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융합교육을 핵심 교육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즉, 융합교육은 경험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학문 분야를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며 학습자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맥락을 학습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인문분야와 실험실습 분야 등 학문 간 융합이 가능한 분야의 주제별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교육 환경을 다양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동탄에 있는 동탄중앙초등학교에는 화성사에서 설치한 '마이랩'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 주변의

초·중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Ⅲ 소통을 통한 교수학습 및 교류 중심 생활 환경

21세기 교육 기술의 하나로 '학생 상호 교감수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4인 또는 6인 단위의 모둠수업, 세미나수업 등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이다. 개인 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협력이 가능한 학습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이나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교감 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습의 결과보다는 인성이 중요시되는 저학년에서는 좀 더 큰 비중의 다양한 학습 참여가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모둠학습 영역, 러그미팅 영역 등 고학년보다 넓은 교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방과후 동아리와 스포츠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과 방과후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Ⅳ 학생 소통과 휴식을 위한 경험 중심의 광장 환경

학생들의 또래집단 구성원 수를 조사해보면 두세 명에서부터 열다섯 명이 넘는 다양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또래집단의 성향은 활동, 휴식, 담소 등 선호 경향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교실과 복도로 구성된 공간뿐 아니라, 교실 밖 거실 개념의 '광장'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 중심에 위치한 광장에서는 학생들의 휴식과 교류,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험적 체험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 개인의 적성에 맞는 행복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Ⅴ 학습의 문화를 바꾸는 중등학교 교과교실제 정착

미래의 교육은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참여하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여기에는 주제별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단위수업시간의 변화(70-90분 수업)가 요구된다. 동시에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전문 교과교실이 필요하다. 이는 학급교실의 교과교실 전환이라는 전제를 가지며 교과별 이동학습에 의한 학습 문화의 전환을 시사한다. 또한, 학급단위와 동시에 학년단위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기능하는 중심 광장은 물론 이동 동선을 단축하게끔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

Ⅵ 발표 및 표현 능력 강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능력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교육 가치로 꼽힌다. 학습 과정에서 토론·발표 경험과 표현 경험은 주요한 교육 효과이다. 이를 위해 언어 관련 능력의 향상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의한 수업 진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표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고학년일수록 발표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퍼포먼스 공간과 같은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Ⅶ 예체능 교육 활성화

예체능 교육은 상당한 주당 수업시수를 차지하나 막상 12년의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적 활용과 성과가 미진하다. 예체능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정서안정과 취미에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특히 음악과 미술은 미세한 음과 표현을 잡아내고

개인의 감성을 신장시키는 창의성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다. 예술 분야의 기본과목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삶의 원동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체능 과목은 공간 관련 측면에서도 두 가지 영역 이상의 전문 교과교실과 방과후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Ⅷ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실생활 중심 융합교육과 같이 교과 중심 교육을 탈피한 경험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협력과 지역 전문 인력의 학교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공간을 개방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학교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 참여는 일방향이던지 소극적이다. 이제는 방과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습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쌍방향 참여를 통해 학교는 주민의 경험을 전수받고 주민은 학교의 학습 공간을 제공받아,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생애 학습을 일구는 것이 우리의 미래 학습 방향이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 공간의 개방을 지자체에서의 지역사회 공공시설 복합 설치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주민의 협력을 유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한편, 학생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개방 구역의 명확한 설정과 관리 주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 여건이 된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단신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일(화)부터 23일(월)까지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이틀간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올해는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241개 기관이 참여한 온라인 전시관을 비롯해 16개의 부대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선도학교·중심대학·교육대학 등 171개의 학교와 및 36개의 교육기술(에듀테크)·정보통신(IT)·비영리기관, 14개의 연구기관, 20개의 정부부처 및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여 운영 사례, 교육용 콘텐츠 등을 전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부대행사'로는 세계 인공지능의 흐름과 교육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학술대회, 개발자와 기업인들의 이야기마당, 온라인 체험교실, 정보통신(IT) 기업들과 함께하는 교원 연수, 인공지능과 함께 만드는 음악, 온라인 코딩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부대행사의 3개 테마(공감마당, 온라인 학교, 온라인 놀이터)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감마당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컨퍼런스 △공감 이야기 △개발자 이야기 △학생 이야기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콘서트로 꾸러졌다.

다음으로, 온라인 학교는 △온라인 교실 △소프트웨어 에듀톤 결선대회 △소프트웨어 교육 으뜸교원 워크숍 △학교 속에 녹아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연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연수 △인공지능 수업 엮보기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놀이터에서는 △온라인 나들이 △인공지능×음악 △인공지능×댄스 챌린지 △인공지능×교육 △온라인 코딩파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세계 주요 나라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공유하고,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제18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최

교육부는 11월 5일(목)부터 11월 7일(토)까지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한국어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자 간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간 각국 참가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총 41개국 27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학 교원 및 초·중등 교원, 교육행정가와 정부관계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술대회는 물론, 교원 연수와 정책 연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올해 중등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새롭게 채택한 인도를 포함하여, 한국어 반을 신규 개설한 국가(파테말라, 덴마크, 라트비아, 르완다, 스리랑카, 체코, 터키, 투르크메, 라오스)의 교육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현지 국가 내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밀레이시아, 우크라이나 교육부 관계자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밀레이시아와는 중등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확대 관련 사안과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한국교육원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와는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과서 개발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교육부 측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한국 교육 정책을 공유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 행사로 11월 3일(화) 한국 교육부와 캄보디아 교육청소신체육부 간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다. 양해각서에는 2021년부터 캄보디아 중등학교에 한국어 사범교육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교육과정 내 한국어가 안착할 수 있도록 양국 교육부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캄보디아 현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원 파견, 한국어 교과서교재 개발, 현지 교원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라는 국제학술대회 주제가 말해주듯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어 교육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EBS 학습 시스템 개통

교육부는 4일(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사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0년 10월 기준으로 874명이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누계 59명의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를 배출하였다. 중학교 단계 학업중단생은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취득한 학생들은 주로 초·중학교 취학 연령이 지나 학교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대표적인 학력취득 사례로는 올해 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울산 거주 21세 김모 학생이 있다. 김모 학생은 어릴 때부터 잦은 병치레로 인한 결석으로 교육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방황하다 친구의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2019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수업, 학교 밖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0년 5월 중졸 학력을 인정받고, 학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이 생겨 현재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항을 법적 근거로 하며,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 학습자 학력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이후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or.kr)에 학습자로 등록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설 프로그램, EBS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학습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학업중단 전 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 학습기간·학습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력인정은 최소 학습기간(초등 4년 이상, 중등 2년 이상)과 학습시간(초등 4,692시수, 중등 2,652시수)을 충족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이후 학력인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 명의의 초등학교 졸업학력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은 그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어 학력인정 학습자 배출이 어려웠던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는 국어, 사회와 같은 필수과정과 함께 수학, 영어, 과학, 코딩, 창의체험 등 4천여 편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학문

번아웃(Burnout):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박해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

학문에 뜻을 품고 대학을 땀땀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필자는 학생에서 직원으로 그리고 교수의 신분이 되어 대학이라는 공간을 경험하였다. 자리가 변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함께 변화하였다. 학생이었을 때는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되어 업무를 처리해 보니 끊임 없는 업무량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교수님들은 여유롭고 자신만만해 보이셨는데, 교수가 되어보니 여유로움과 자신만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이었을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시간 동안 대학 사회는 조금씩 변하여 갔다. 대학의 낭만은 사라지고, 취업하기 위해 남들과 경쟁하며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취업준비를 하는 치열한 현실이 대학가에 자리잡았다. 직원이 되어 돌아온 대학에는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났다. 새로운 업무는 좋은 취지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생겨난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대학과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는 만큼 대학의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늘어났다. 열정적이고 우수했던 동료 직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체력이 소진되고 냉소적으로 변하여 갔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대학을 떠나갔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에 남아있었으면 했던, 그러나 대

학을 떠나간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필자의 논문의 출발점이었다.

연구는 대학을 떠나간 동료 직원들의 경험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더불어 책과 논문, 신문을 읽으면서 ‘번아웃*’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마침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WHO에서 ICD-11(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을 발표하였다. WHO는 ICD-10에서 개인 차원의 관리 문제로 분류하였던 번아웃을 ICD-11에서는 고용 또는 실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재분류하였다. 번아웃을 바라보는 WHO의 시각의 변화는 번아웃을 개인 차원이 아닌 고용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은 아니었다. 학생의 눈으로, 직원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교수 사회는 대체적으로 평온했다. 때문에 지도교수님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번아웃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권유하셨을 때 의미 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인지 필자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번아웃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확신으로 변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침묵 속에서 전염병처럼 조용히 번지고 있는 문제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소위 편한 직업이라는 편견 속에서 외면 받아야 했던 고통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번아웃은

어느 사이에 직원 사회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까지 퍼져 대학가를 잠식해가고 있었다.

Robert L. Minter 교수는 「Faculty Burnout」이라는 논문에서 대학을 번아웃의 온상지(A breeding ground)라고 표현하였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학들 역시 번아웃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직원 사회에서도 유능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가다가 대학에 환멸을 느끼고 변해갔듯, 교수 사회 역시 젊고 능력 있고 대학과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의 희생 집단이 되어 갔다.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과 연구 업무 외에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대학의 행정 업무까지 맡아 무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과 학생들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한 행정 업무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대학과 학생들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그들이 번아웃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 교수님의 인터뷰가 생각한다.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교수님, 예전에는 참 열정적이셨는데, 지금은 변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참 미안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한 마디를 지친 얼굴로 참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님들 대다수가 비슷했다. 과도한 업무량에 치여 점점 지쳐가고 무능력해지는 것 같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학생들과 멀어지는 자신을 보며 학생들에게 미안해하였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감추며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끝끝내 인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어느 시절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대학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이다.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며 우리 대학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열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더욱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오늘도 그들은 소진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감추며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번아웃은 개인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홀로 번아웃을 이겨 내려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떨까? 주위를 둘러보고 어느 사이엔가 열정을 잃어버린 교수님이 계신지 살펴보자. 어쩌면 학생들에게 무뎠던 그분께 보이고 지쳐계신 그분이 사실은 학생들을 가장 아끼는 교수님일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살면서 다가가서 작은 응원과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보자. 우리의 따뜻한 응원과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이 어찌면 차갑게 재가 되어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번아웃: 2018년 발표한 WHO의 ICD-11에 따르면 번아웃은 에너지 고갈이나 탈진감, 직장/정신적 거리 증가, 또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부정적 냉소감, 직업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고용 또는 실업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이다.



교육신문 문화평

크라잉넛 데뷔 25주년: 조선펑크의 과거와 현재 ④

조선펑크의 또 다른 기수, ‘성난 젊음’의 약사(略史)

차승우는 록의 프로토 타입 중 하나인 지미 헨드릭스의 곡을 능란하게 연주하며 주목을 받았다. 본래 비틀즈 등 로큰롤의 초창기 음악들에 경도되어 기타를 잡았던 차승우는 이 시기 클래쉬, 섹스 피스톨즈 등 펑크 밴드에 심취해 있었다. 1996년 서울대, 건국대 등지에서 개최된 ‘소란’ 페스티벌에서 크라잉넛 등의 공연을 접한 차승우는 클럽 드럭을 찾았고, 여기에 이성우와 의기투합하게 된다.

이들은 머지않아 컴필레이션 앨범 ‘아워 네이션 vol.2’에 참여하며 크라잉넛과 함께 드럭을 이끄는 투톱의 반열에 오른다. 노브레인의 음악은 보다 선명한 ‘결기’의 측면에서 크라잉넛의 ‘해학’과 대별되었다. 크라잉넛이 자신들의 혼돈을 뒤엎린 언어로 노래하되 분노의 대상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노브레인은 ‘문민정부’(아주 쾌활한),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사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아름다운 세상) 등 자신들의 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울분을 표출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악동’보다 ‘투사’의 그것으로 전유했고, 이는 소위 ‘순수’ 펑크록 매니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들의 ‘저항 정신’은 1998년 여름, ‘연예인 짓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드럭과 결별하면서 극적으로 표출된다. ‘아워 네이션 vol.2’의 수록곡 ‘바다 사나이’가 평단의 호평을 이끌고 인디음악

최초로 공중파 음악프로그램 순위권에 진입했던 즈음이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펑크 상업화’ 논쟁이 일으킨 분열에서 노브레인은 한 축의 기수가 된 셈이었다. 독자적인 레이블 ‘문화 사기단’을 설립한 이들은 곧바로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청춘 98’ 싱글을 발매하며 기대에 갇히는 행보를 시작한다. 차승우의 군 제대 이후 발매된 첫 정규 앨범 ‘청년폭도맹진기’는 크라잉넛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펑크의 또 다른 절정을 이루는 앨범이었다. 군 생활 당시 차승우가 진중문고에 비치된 독립군가 가사집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리라’, ‘-노라’ 등의 어미를 활용한 문어체 가사와 ‘진군가’에 걸맞는 이성우의 보컬, 그리고 펑크의 단순한 형식에 한정되지 않는 차승우의 연주는 이 앨범이 대중음악사에서 지울 수 없는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게 했다(대중음악 명반 순위를 선정할 때, 이 앨범은 순위권에서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 한편 노브레인은 2000년 서태지 컴백 당시 주류 음악 산업을 비판하는 여러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2001년 일본 록의 심장 후지록 페스티벌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판하며 욕일기를 찢는 등 저항의 결기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태도’의 측면에서도 조선펑크의 한 절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의 말을 빌

리면 “민중가요 진영 바깥에서 처음으로 배태된 메시지와 음악이 일체가 된 작품”인 ‘청년폭도맹진기’의 성공(?) 이후, 노브레인 역시 펑크 록의 ‘메시지’와 ‘음악’ 간의 필연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갈라진다. 그 기점은 기타리스트 차승우의 탈퇴였다. 훗날 이들의 음악적 행보와 인터뷰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메시지’와 ‘음악’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2집 ‘Viva NoBrain’을 기점으로 무언가 정체되었다고 느낀 차승우가 메시지를 유지한 채 음악 면에서의 확장을 원했다면, 이성우 등은 펑크록의 스타일을 유지한 채 대중성을 가미하길 원했다고 보여진다. 찰나와 같은 ‘조선펑크’의 전성기 시절, 이들이 내린 결단의 적절성은 아직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분명한 건, 이전 글에서도 다루었던 그러한 분열은 어쩌면 ‘펑크록’ 밴드의 필연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1, 2집에서 거의 전곡의 작사·작곡을 담당하던 차승우가 빠진 ‘후기’ 노브레인은 ‘넌 내게 반했어’, ‘비와 당신’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이전보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차승우 역시 여러 밴드를 거치며 한국에서 유난히 희소성이 높은 기타 히어로의 명맥을 잇고 있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크라잉넛과 함께 조선펑크의 약진을 견인한 쌍두마차의 다른 한 축은 1996년 결성된 노브레인(怒 Brain)이었다. 초기 노브레인의 주축은 이성우(보컬)와 차승우(기타)였다. ‘불대갈’(빨간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펑크 스타일로 삐죽 삐죽 세우고 다녀서 붙은 별명) 이성우는 펑크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마산에서 혈혈단신 상경해 드럭에서 먹고 자며 크라잉넛의 객원 보컬로도 활동하던 펑크키드였다. 한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차승우는 이미 록 씬에서 떠오르는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었다. 대부분의 스쿨 밴드가 메탈 음악을 카피하던 시절,

교육과 스승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과 사회 기여를 위해 힘쓰는 전상표 교수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육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영진전문대학교 전상표 교수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문대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 국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도록 그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는 전상표 교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상표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계열 교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계열에 재직 중인 전상표입니다. 해외 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대학생이 폭넓은 국제 실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전문대학에 재직하며 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슬하의 학생들이 국내외 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문대학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6년부터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해외의 근무 환경 등을 사전 조사하고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거나 더 넓은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인재가 해외 취업을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얻는다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선뜻 해외취업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사회생활을 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해외 취업을 하려면 여러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언어 습득을 비롯하여 전공 실무 능력, 현지에서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문화 포용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선불리 해외 취업을 포기합니다.

본교에서는 해외취업과정을 시작하기 전, 사전교육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합니다. 외국인 교원과의 진로상담, 해외 인사 초청 특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외취업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의 동의 여부와 개인이 처한 환경, 국제 정세 등도 해외취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 자신이 확고한 목표와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한다면 충분히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해외취업을 결심하고 성공하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자 대기업을 그만두고 해외취업반에 진학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해서 제게 여러 차례 전화상담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결국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학생 스스로도 전자사전 자판이 지워질 정도로 학업에 매진하여 목표한 해외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 학생이 지난 1월에 다섯 살배기 딸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굉장히 뿌듯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 뿐 아니라 캠퍼스 내의 글로벌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뜻을 두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글로벌 캠퍼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ICT(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 Technology) 시대를 맞아 국가, 기업, 인적 교류가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졌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대학의 가치 실현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외국어 능력, 문화수용력, 선진 기술을 습득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외 기업을 캠퍼스에 유치하여 재학생 직장 생활 문화체험, 전공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감각과 동기를 가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타국의 문화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글로벌 캠퍼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진전문대학교의 해외취업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2020년 대학정보공시 발표에서 해외취업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3D 업종이나 저연봉의 해외 취업이 아닌 전문 인력 분야에서 양질의 취업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그 의의가 큼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해외취업 준비에 특화된 자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현지학기제, 글로벌현장학습과 같이 산업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현지기업 출신의 교수진을 통한 다양한 전공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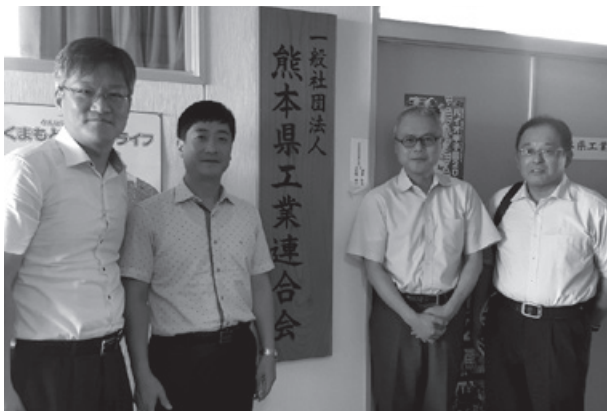
해외 기업 정서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미리 습득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매년 10월에 해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을 진행합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주문식교육협의회가 발족하여 산학연계 해외취업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해외 기업은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학생은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곧바로 현업에 투입된다는 점이 성공적인 해외 취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기술 개발의 가속화와 복합화에 따라 직무가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 온 학생들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실무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하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전공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이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전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는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제자를 배출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장차 우리나라에 버팀목이 될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양성하는 진취적인 교육전문가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세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의 모국어교육



박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카디나비어과 교수

스웨덴에서는 이주자(invandrare)라는 용어보다 이주자 배경(invandrarbakgrund)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 이주자 배경은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본인은 스웨덴 출생이어도 부모 모두 외국 출생인 사람을 지칭한다. 이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총인구의 약 24%(통계청, 2017)에 달하는 스웨덴은 다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이주자 배경 아동들의 언어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들의 모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제도의 체제 및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 스웨덴의 통합정책과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1960년대 이후 노동이민의 급증으로 인해 이주자의 언어 문제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치 안건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웨덴은 강력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다원주의적이고 통합주의적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통합정책의 목적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스웨덴 국민의 일원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후에 이 통합정책 법안은 두 가지의 특별 교과목인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 교육’과 ‘모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이주자-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와 사회주류 언어인 스웨덴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사고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모국어교육의 목적과 역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교육이 이들의 모국어 개발과 주류언어의 발달에 모두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모국어는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스웨

덴 교육청이 명시한 모국어교육의 목적은 다문화 학생이 강한 자부심과 이중문화 정체성 그리고 유연한 문화능력을 가진 이중언어인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은 1962년 일부 지자체에서 핀란드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7학년과 8학년 선택과목으로 핀란드어를 배울 수 있게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7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소위 가정언어개혁(hemspråksreformen)을 통해서 지자체는 처음으로 모국어교육 및 모국어지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1997년부터 ‘가정언어’가 ‘모국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통합정책의 일환인 가정언어개혁에 따른 모국어교육은 이주자 배경 학생들이 스웨덴 학생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학교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 개혁으로 스웨덴은 언어에 관계 없이 다문화·소수민족 아동에게 모국어교육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여 모국어교육의 국제적인 선구자가 되었다.

■ 현행 모국어교육의 체제 및 실태

현행 학교법(SFS 2010:800)에 따르면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은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와 학교급에서 모국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모국어교육 관련 규정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소속 지자체에 최소한 5명의 동일한 모국어교육 신청자와 적합한 모국어 교사가 있어야 실제로 교육이 실행된다. 모국어교육의 실행 여부는 교장이 결정하며, 학생수가 적으면 타고와 협업할 수도 있다. 2014년 국회는 스웨덴어가 아닌 부모의 모국어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는 자녀도 해당 언어로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하

였다. 예외적으로 소수민족 자녀와 입양아,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교육 단계별 모국어교육 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준비반에 다니는 다문화 6세 아동들은 스웨덴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모두 발달시키고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이주자 아동의 약 22%, 초·중등학교 준비반의 경우 2017~2018학년도 기준 총 대상자의 약 40%가 모국어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부터는 자체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독립 교과목이다. △(특정과목의 심화 학습을 위한) 학생 개인 선택, △(특정언어 교습을 위한) 학교 선택, △언어 선택, △정규 수업 외 과목 중 하나로 택할 수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로 선택과목으로 실행되며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 후 일주일에 40~60분씩 실시한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많으면 이들의 모국어와 스웨덴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중언어교육’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행할 수 있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18학년도 기준 총 대상자 중 약 60%가 초·중등학교에서 모국어교육을 받았다.

고등학교에서도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모국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9학년 모국어 성적이 요구된다. 고등학교에서는 △개인 선택, △심화 프로그램, △스웨덴어-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 △영어 수업의 대체 과목 중 하나로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09~2010학년도 기준 총 대상자의 약 52%가 모국어 교육을 이수했다.

■ 모국어교사

모국어교사의 임무는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학교 정규 교과목을 모국어로 지도하는 것이다. 모국어교사는 모국어교육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나 지역 출신이어야 하며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77년 가정언어개혁으로 모국어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현재 스웨덴에는 약 3,000여 명의 모국어교사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 모국어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

1977년 가정언어개혁 이후 모국어교육의 실행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부족한 경제적 지원 △방과후 수업으로 인한 동기 저하 △주당 1시간이 채 안 되는 불충분한 시수 △연령 및 개인별 모국어 능력 차이 △모국어교사의 부족과 소외감 △학교 집행부와 일반 교사의 모국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 내 부정적인 태도

모국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2002년 국가위원회는 모국어교육 지원 개선을 위한 ‘Flera språk - flera möjligheter(더 많은 언어 - 더 많은 가능성)’이라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는 모국어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한편, 다양한 언어로 된 강외보조기구의 지속적인 개발·지원 그리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18년 모국어교육 및 지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은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한국사회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모국어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현장 노트



강서진
국어교육전공

2020학년도 교생실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 이전의 교생실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4주였던 교생실습 기간은 2주로 축소되었고, 그나마도 격주 등교 지침으로 인해 아이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간은 1주일에 불과했다. 당시 내가 담당했던 중학교 1학년은 등교 자체가 처음인 학생들이었는데,

그 짧은 등교 기간마저도 수행평가를 치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나의 수업은 중학교 입학 후 처음 듣는 현장 수업이자 동시에 등교 기간 실시되는 유일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좋은 수업, 최고의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조별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강의식 수업을 하거나 지루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문학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며칠 동안 고민했고, 그 결과 나름 만족할 만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수업은 ‘나’로 인해서가 아닌 ‘학생들’로 인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국어과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통해 문학을 내면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을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나는 비유 표현을 활용한 ‘모방시 짓기’ 활동을 마련했다. 시 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문학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참여도가 낮으면 어쩌하나 내심 걱정했

지만 다들 열심히 입해 주어 활발한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창작한 시를 살펴보니 소재가 대체로 게임, 떡볶이 등 예시로 제시된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비유 표현의 양상과 그 표현을 사용한 이유 또한 대체로 비슷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의 수업이 마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 보는 정도에 그친 것만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단번에 없애준 학생이 있었다. 벚꽃을 제재로 시를 창작한 그 학생은 ‘벚꽃은 국어 선생님 같다.’라고 발표했다. 나는 왜 그런 비유를 사용했는지 질문하였다. 그 학생의 대답을 듣기 전, 당연히 ‘예뻐서요’ 등의 단순한 이유일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대답은 나를 비롯한 교실의 모두를 감동시켰다. ‘벚꽃이 금방 왔다 금방 가버리는 것처럼 교생 선생님도 금방 가버리시니까요.’

수업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로 교사 혼자서 완벽한 수업을 만들 수는 없다. 교사와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육은 계속해서 ‘참여형·토론형·수

평적 수업’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차세대 교육으로 주목받던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어쩌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이 상황이 차세대 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이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물론, 녹화 강의는 수정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습 기간 동안 녹화 방식의 온라인 수업을 제작해 본 결과 마치 AI 교사가 된 느낌이 들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없으니 수업의 집중도와 효과가 모두 떨어지는 듯했다.

현장 수업은 물론이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소통, 모두가 함께하는 수업은 중요하다. 더 이상 단순한 강의식 수업은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학생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만이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끝없이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학교현장 탐방

‘국제화중점과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쓰는 태광고등학교



장원
태광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태광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태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 장원이라고 합니다. 1969년 12월, 태광상업고등학교로 시작한 본교는 2012년 완전한 형태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려 학교 인근 미 공군부대와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2년 부대 내 미국 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 간 인적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영어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영어몰입교육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년간 영어 중점 학교를 운영하였고, 2018년부터는 국제화 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화 교류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태광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태광고의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미 공군부대가 있어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서도 외국인 사장님들과 종업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보니 영어를 구사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영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수요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영어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교는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들(영어 회화 프로그램, 모의 UN총회, 영자신문 스크랩 및 제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과 주제를 가지고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 있는 고등학교들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교는 학생들이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관련된 행사도 다채롭게 개최하여 균형 있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중점과정은 ‘다양한 교과외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세계 어디에서든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정치·경제, 세계·동아시아·한국사, 국문·영문학, 영어·중국어·일본어 회화와 같은 인문사회 교과목들을 기본으로 하는 한편, 여기에 수학, 과학 등의 이공계 교과목들을 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화 중점 학급은 3학년 1개 반, 2학년 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한 후에, 2·3학년을 1개의 단위(Cluster)로 하는 연계 교육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년 단위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 예를 들면 정규 수업 과목이나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학급 모의UN, 국제화상교류프로젝트, 미국 고등학교 수업 교류)에 대하여 100%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와 적성에 따라 주도적인 참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온·오프라인 교류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 동시에 건전한 생각과 이타심도 함께 함양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생들의 타 국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다소 걸끄러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화 중점 학급이라고 해서 꼭 영어와 관련된 활동만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와 역사, 언어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역사·정치적으로 밀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먼 나라들이지만 저희 학생들은 감정적으로 이들 국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넓은 관점에서 이들의 상생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태도 또한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화중점과정이 거두고 있는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문 기사를 읽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구·토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각국 관계에 대한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차 세계를 무대로 하여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국제화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었습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꿈꾸는 학생들만을 선발하고자 하는 논의가 선발 전 단계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꽤나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발 방식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자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심사 와 간단한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더욱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학급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 수업에서 최선을 다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즐겁고 흥미로운 학급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화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의식이 생겨 한층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는 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세계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졌다는 점,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며 3년간의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낸 점 등의 여러 장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친구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학급에 속한 친구들은 1년여의 짧은 기간 친해졌다가 진급과 동시에 다른 학급에 편성되고, 이로 인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반면 국제화 중

점 학급은(현재까지의 운영 방식은 1학년부터 같은 학급에 편성, 2021년부터는 2학년부턴 같은 학급에 편성) 학생들이 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끝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학부모 및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막상 교사가 되고 나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즐비합니다. 보통 행정업무들이 많은 편인데 어떤 날은 수업 준비보다 업무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수업을 자습 시간으로 대체한 적도 있었고, 결국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 지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화를 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이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업무는 다시 할 수 있지만 수업은 한 번 진행하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행정업무를 못해도 교사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지는 않습니다만 수업을 망친 교사는 스스로 그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행정업무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수업과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면, 미래의 교사가 되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훌륭한 교사가 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국제화중점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각국 관계에 대한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차

세계를 무대로 하여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문화 탐방

한옥의 멋을 따라, <은평 한옥마을 기행>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북한산을 품은 한옥, '은평 한옥마을'을 소개합니다. 도시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한옥을 은평 한옥마을에서는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곳의 한옥은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이 보다 더 잘 드러납니다. 서 울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나 차량 접근성 또한 좋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은평 한옥 마을. 북한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산책하고 싶을 때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제 은평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다함께 떠나볼까요?

<셋이서 문학관>

- 장소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23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55-5800

<삼각산 금암미술관>

- 장소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21-2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51-4343

<진관사>

- 장소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59-8410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장소위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어른 1,000원/초·중·고·군경 500원
영유아·노인 무료
- 관람문의: 02-351-8524

<너나들이센터>

- 장소위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0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51-4433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자. 건설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직사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한옥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같은 모양의 집은 하나도 없다. 한옥은 주변 자연환경의 모습에 따라 그 형태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건축물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건축물의 벽면들은 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통 한옥의 벽면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한옥의 벽면은 약간의 비대칭, 그러면서도 비례와 균형을 갖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완벽한 좌우대칭은 오히려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옥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까래, 추녀, 처마 등을 통해 실현된 곡선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은화한 느낌을 선사한다.

보통 다른 나라는 외관이 아름다운 집을 '좋은 집'이라고 여기는 반면, 우리 한옥의 경우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았을 때의 풍경이 아름다운 집을 '좋은 집'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은평한옥마을은 외관은 물론 한옥 내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아름답다는 점에서 매우 잘 조성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한층 더 한옥의 미(美)가 돋보이는 이 마을에는 다양한 볼거리 또한 마련되어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은평 한옥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자.

I 셋이서 문학관

은평 한옥마을 입구에서 출발하여 정면을 향해 들어가다 보면 '셋이서 문학관'이 등장한다. '셋이서 문학관'에서 말하는 '셋'이란 천상병 시인, 중광 스님, 이외수 작가를 의미한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기인(奇人)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귀천'이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천상병 시인은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다. 6개월간 심한 고문과 옥고를 치른 탓에 몸과 마음이 깊이 상했지만 그는 특유의 천진함을 잃지 않았던 '문단의 마지막 기인'이자 순수 시인이었다. 중광스님은 '걸레스님', '미치광이 중'을 자처하며 파격적인 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불교계울에 얼마이지 않는 기행 때문에 1979년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선화(禪畵)의 영역에서는 국내외로 명성을 얻어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외수 작가는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명명되는 인물이다. 그는 타고난 재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언어의 연금술을 펼치며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문학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인(奇人)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세 명의 작가는 분명 특이하게 비추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그들의 작품 속에는 그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셋이서 문학관'에 들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II 삼각산 금암미술관

셋이서 문학관 바로 옆에는 '삼각산 금암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셋이서 문학관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했다면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해보도록 하자. 두 공간이 바로 붙어 있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문학과 미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앞서 살펴본 셋이서 문학관도 그러하지만 한옥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에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기별로 전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은평 한옥마을에 방문할 때마다 들르면 꽤 다채로운 전시들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진관사

삼각산 금암미술관에서 나와 큰 길을 따라 쪽 올라가다 보면 '진관사'라는 사찰에 이를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사찰인 진관사는 예로부터 서울

근교 4대 명찰(名刹)로 손꼽히는 이름난 사찰이다. 이 절은 고려 현종 시기에 창건되었지만 6·25 전쟁 당시 나한전, 칠성각, 독성전 3동만을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다. 그러나 1963년 비구니 최진관 스님의 노력으로 옛 사적을 복원할 수 있었다.

한편, 2009년 칠성각 해체복원 작업 중 백초월 스님이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 사찰이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었음을 말해준다.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태극기에 싸인 채 발견된 각종 신문과 문건은 중국과 국내의 독립운동에 실제 사용된 것들이다. 특히, 이 사찰에서 발견된 태극기는 일장기의 적색 부분에 청색을 덧그려 태극 문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는 일본을 향한 우리 선조들의 강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1919년 즈음 제작된 태극기 가운데 현존하는 태극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는 더욱 크다.

만약 6.25 전쟁 당시 이 칠성각까지 소실되었다면 이 소중한 자료들은 현재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이 자료들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잃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칠성각만큼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강렬한 소망과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I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은평의 역사와 한옥을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취재 당시 외벽 보수 공사 중인 관계로 직접 둘러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 관람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박물관은 은평 역사실(2층)과 한옥전시실(3층)로 이루어져 있다. 은평 역사는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은평의 유래와 지리, 은평에서 발굴된 유물, 은평을 대표하는 주요 지정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다.

한옥 전시실 또한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옥의 변천과정과 근대 한옥의 모습은 물론, 한옥의 구성요소에 담긴 과학적 원리, 한옥의 재료와 건축 과정 전반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한옥 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옥에 담긴 지혜와 그 우수성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II 너나들이센터

너나들이 센터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지상 1층에는 전시실이 지상 2층에는 한복 체험실과 사진 촬영실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복 체험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 사태 이전에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1시간 동안 한복을 무료 대여해 주어 그 인기가 매우 뜨거웠다고 한다. 한옥마을 내에서라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너나들이 센터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다고 하니, 한복을 입고 한옥 사이를 거니는 재미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하루빨리 예전처럼 한복을 입고 한옥을 거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빌딩 숲이 익숙한 우리에게 한옥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낯설 속에서 피어오르는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은 금세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그 어떤 마을보다 아름답게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잠시 복잡한 시내에서 벗어나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이곳에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한옥의 모습과 곳곳에 자리한 여러 명소들을 감상하며 여유를 느껴 보기를 바란다.

